

‘꽃 피우기’의 실제와 ‘꽃에게 묻기’의 대안적 가능성

—구비 창세 신화의 ‘꽃 피우기’ 삽화 재고(再考)—

정진희*

<차례>

1. ‘꽃 피우기’의 함의와 명명의 문제
2. 내기의 실제와 개화(開花)의 주체
3. ‘꽃에게 묻기’의 유형화 가능성
 - 1) 유형의 유래: <할망본풀이>
 - 2) 유형의 선례: 『월명사 도술가』의 <도술가> 배경 설화
 - 3) ‘꽃에게 묻기’의 구성 양상
4. 꽃의 신화학: ‘꽃에게 묻기’ 유형화의 연구사적 효용

<국문초록>

무속 창세 신화에서 누가 인간 세상을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경쟁하는 짝패는 이른바 ‘꽃 피우기’ 내기를 시행한다. ‘꽃 피우기’라는 명명은 짝패가 꽃을 피어나게 하는 능력을 지녔음을 뜻하는바, 본고는 이러한 함의를 지닌 명명이 신화의 실상에 부합하는가를 살펴 보았다. 창세 신화의 내기 장면에서 내기를 지칭하는 실제 어휘를 검토하여, 짝패가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판단과 선택을 의뢰받은 꽃이 피어남을 통해 승자를 가려주는 것이 내기의 실상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짝패의 능력을 강조하는 종래의 명칭 대신 꽃을 선택과 판단의 주체로 의미화하는 ‘꽃에게 묻기’라는 명명을 제안하였다. ‘꽃에게 묻기’는 무속 신화 중의 하나인 <할망본풀이>에서 공시적 유례를, 또 『삼국유사』 소재 <도술가>와 그 배경 설화에서 통시적 선례를 찾을 수 있는바, 이것은 한국 신화사에서 하나의 서사적 삽화 혹은 화소로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논의는 ‘꽃의 신화학’을 위한 개념적 정지 작업이자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강의교수

□ 꽃 피우기 경쟁, 꽃에게 묻기, 경쟁하는 짝패, 꽃의 신화학

1. ‘꽃 피우기’의 함의와 명명의 문제

꽃은 한국 무속의 신화적 상상계를 구성하는 주요한 상징적 표상 중의 하나이다. 꽃은 인간의 탄생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는 재생의 도구이기도 하다. <할망본풀이>, <세경본풀이>, <바리공주> 등의 무속 신화에서 이러한 ‘생명꽃’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천꽃밭’을 관장하는 꽃감관 가족에 대한 신화인 <이공본풀이>에는 생명꽃과 함께 죽은 사람을 살리는 ‘환생꽃’, 악한 이를 징벌하는 ‘악심꽃’ 등도 함께 등장하는데, 이러한 꽃들은 모두 생명꽃의 분화 형태로 이해된다.¹⁾

꽃이 등장하는 무속 신화로는 창세 신화도 빼놓을 수 없다. 누가 인간 세상을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짝패가 경쟁하는 이른바 ‘인세차지 경쟁’ 삽화에는 승자를 가리기 위한 내기가 반복적으로 행해지는데, 그 내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꽃을 둘러싼 내기이다. 경쟁하는 짝패 중 누가 꽃을 ‘피워내는가’를 보아 인세를 차지할 이를 정하자는 내용으로 이해되어 온 그 내기는, 일찍부터 ‘꽃 피우기 내기’, ‘꽃 피우기 경쟁’ 등으로 명명되어 왔다.²⁾ 꽃은 곧 생명의 상징인바, 꽃을 피워내는 능력은 생명을 관장하는

1) 무속에 나타나는 생명과 재생의 꽃에 대한 선행 논의는 안영희, 『古人들에게 反映된 꽃의 意味』, 『아시아여성연구』 11, 1972, 현승환, 『생불꽃 연구』, 『백록어문』 13, 1997, 이수자,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등에서 논의된 사례를 대표적으로 참조할 수 있다. 징벌의 꽃이나 재생의 꽃은 생명의 꽃이 분화한 형태라는 논의는 정진희, 『제주무가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에 관한 일고찰』, 『국문학연구』 7, 2002 참조.

2) 서대석, 『創世始祖 神話의 意味와 變異』, 『구비문학』 4, 1980, 김현선, 『한국의 창세 신화』, 길벗, 1994 등을 비롯, ‘꽃 피우기’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명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능력과 같다. 그러므로 삶의 공간인 이승, 즉 인세를 관장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누가 꽃을 피워낼 수 있는가를 겨름으로써 해결될 수 있기에 이러한 내기가 등장했다고 보아 온 것이다.³⁾

창세 신화의 이 장면을 ‘꽃 피우기’라고 명명할 때, 꽃은 신격에 의해 피어남으로써 신격의 생명에 대한 권능을 증명하는 방편으로 의미화된다. ‘피우다’라는 사동사를 써서 개화(開花)의 피동성을 적시하는 ‘꽃 피우기’라는 명명 하에서, 흔히 생명을 상징하곤 하는 무속의 꽃은 신격이 제어하는 객체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본고가 문제삼고자 하는 지점이다. 명명의 의미대로, 꽃은 신격이 다루는 도구 또는 신격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동원하는 수단인가? 신격은 꽃을 피워내는가? 생명의 꽃은, 다시 말해 생명은 신이 좌지우지하는 대상인가?

이러한 문제 제기의 단초는 무엇보다도 무가의 실제 문면에서 ‘피우기’라는 표현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일례로 대표적 창세 무가로 일찍이 그 가치가 인정된 바 있는⁴⁾ 김쌍돌이 구연의 <창세가>를 보자.

釋迦님이 또 한번 더 하자,
 너와 나와 한 房에서 누어서,
모란싹치 모랑모랑 피여서,
 내 무렵헤 올나오면 내 歲月이오,
 너 무렵헤 올나오면 너 歲月이라.
 釋迦는 盜賊心事를 먹고 반잠 자고,
 미력님은 찬잠을 잤다.

3) 이에 대한 논의는 서대석(1980), 위의 글이나 김현선(1994), 위의 글 및 비교적 최근의 연구 성과인 조현철, 『두 개의 태양, 한 송이의 꽃 - 월명사 일월조정서사의 의미망』, 『민족문화사연구』 54, 2014 참조.

4) 서대석(1980), 위의 글, 20쪽.

미력님 무렵우에,
 모란소치 피여 올낫소아,
 釋迦가 中等사리로 썩거다가,
 저 무렵해 소젓다.⁵⁾ (밑줄 필자)

여기에서 꽃(모란꽃)은 주격 조사가 붙은 주어이자 ‘피다’, ‘올라오다’라는 동사의 행위 주체이다. 최소한 위 텍스트의 문면에 한정할 때, 꽃은 피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피어난다. 꽃이 핀 후에라야 비로소 석가가 ‘꽃을’ 꺾거나 꽃는바, 작패의 의지나 행동이 미치는 꽃은 이미 피어난 이후의 꽃일 따름이다. 인세차지 경쟁의 주체인 작패에 초점을 맞추느라 작패를 주어로 하는 ‘꽃 피우기’라는 명명이 부여되고, 그로 인해 실상과는 달리 꽃이 객체화, 대상화되는 바람에 명명이 지시하는 함의가 원래의 실상과는 어긋나게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 볼 수 있다.

꽃이 저절로 피든 누군가가 꽃을 피우든 그것이 무슨 큰 차이이며 대수라 하고 말 일은 아니다. 작패 중 한 쪽이 꽃을 피워냈다고 할 때, 꽃을 피우는 그는 꽃의 상징적 의미에 기대어 생명을 주관하는 존재, 나아가 생명의 창조력을 지닌 존재로 해석된다. 그런데 그가 꽃을 피운 게 아니라고 한다면, 즉 그가 ‘개화’에 관여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한 상징성은 재고될 수밖에 없으며, 아울러 이 장면에서 꽃은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가도 다시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꽃의 상징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는 의미있는 고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먼저 ‘꽃 피우기’라는 명명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창세 신화를 검토하여 그것에 어떤 이름을 붙여야 서사의 실상과 부합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명명이 될 수 있는가를 살필 것이

5) 김현선(1994), 위의 책, 234쪽. 원문의 각주 번호는 생략한 채 인용하였다.

다. 다음으로, 꽃과 관련된 이러한 서사 유형(삽화 혹은 화소)이 창세 신화 고유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서사 텍스트에도 등장하는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창세를 주제로 하는 무속 신화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의 무속 신화에도 이러한 서사 유형이 존재함을 확인하여 공시적 일반화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아울러 『삼국유사』 소재의 설화 가운데에서 그 통시적 선례를 확인함으로써 하나의 유형적 서사로서 일반화될 수 있는가를 가늠해 볼 것이다.

미리 말하자면 본고는 ‘꽃 피우기’ 대신 ‘꽃에게 묻기’라는 명명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연구사적으로 통용되는 ‘꽃 피우기’ 대신 ‘꽃에게 묻기’로 바꿔 불러야 그것이 실상에 부합하는 타당한 명명일 수 있음을 주장하고, 이러한 명명의 전환으로 제기되는 연구 과제와 기대되는 연구사적 효용을 보임으로써 이 글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명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내기의 실제와 개화(開花)의 주체

‘꽃 피우기’라 일러 왔던 그 내기가 실제 무가의 문면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혹은 어떤 표현을 통해 제안되고 있는가를 살펴 보자.⁶⁾

6) 편이상 김현선(1994), 위의 책의 자료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책에 수록된 자료 가운데 내기의 내용이 꽃과 관련되는 부분, 즉 이른바 ‘꽃 피우기’라는 이름으로 지칭되어 온 부분만을 제시했다. 무가가 아닌 설화 형식의 체록 자료는 일단 제외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따로 거론될 것이다. 표의 제목은 인용서의 제목을 그대로 따온 것이며, 무가 자료의 원문 또한 원출처와의 대조 없이 그대로 옮긴 것임을 밝혀둔다.

번호	제목	지역	내기 제안
1	김쌍돌이 구연 <창세가>	함남 함흥	彌勒님의 말씀이, 너 내 세월 앓겠거든, 너와 나와 내기 시행하자, (...) 또 내기 시행 한번 더 하자. (...) 釋迦님이 또 한번 더 하자, 너와 나와 한 방에서 누어서 , 모란소리 모랑모랑 피어서 내 무렵해 올나오면 내 歲月이오, 너 무렵해 올나오면 너 歲月이라.
2	전명수 구연 <창세가>	평북 강계	미력님이 하난 말이 그러면은 다른 내기 하여보자 무슨 내기 하여볼가요 잠자기 내기 를 하여보자
3	강춘옥 구연 <생곳>	함남 함흥	(노래) 그적에 석가임이 하는 말이 (말) “저 우리 잠을 자는 내기 를 합시다. 이번에 내가 지면 내가 들어가고 미력님이 지면 미력님이 들어 가오” 신선 잠 자기 내기 를 했습니다.
4	정운학 구연 <삼태자풀이>	평양	미력님이 하시는 말씀 석 달 열흘 잠을 자면 외인 무릎에 불동화가 三 세 송이 필 것이라 몬져 피면 세상 배포를 몬져 가기로 하옵시다
5	박용녀 구연 <당고마기 노래>	강원 강릉	미력님의 하는 말씀 그러지 마시고 나하고 천상천궁에 석 달 열흘로 내기 잠 을 자가지고 도 여든 양으로 나라차치 하십시다 국차치를 하십시다
6	최음전 구연	경북	제석궁로 떠나가야 미록도사과 내기잠 으로 자시는구나.

	<당금아기>①	영덕	한 초당에다 꽃을 숨어놓고 미륵도사님과 석가여애와 내기 참으로 자시는구나 석가여애 꽃이 먼저 피어지면 석가여애가 우리조선 배판하시고 미륵도사님의 꽃이 먼저 피며는 미륵도사님이 먼저 우리 조선 배판을 하시구 꽃을 숨어놓고 내기잡으루 자시는 구나 내기참을 자실 때에 미륵도사 꽃으루 먼저피고 석가여애 꽃은 냉중편다.
7	권순녀 구연 <순산축원>	경북 울진	시준님이 미륵님의 시대를 뺏으라고 마음을 먹으니,(...) 미륵님이 그럼 할 수 없다. 내 시대가 아직 멀었는데 네가 내 시대를 뺏으려 해도 석 달 열흘 내기 잘 자라.
8	문창현 필사 <천지왕본>	제주	천지왕이 말하되 그러면 너의 형제의게 대응전으로 가서 꽃사발을 난노아 주개노라 . 꽃내용은 인간을 태와시면 꽃이 만발하여 열매를 매자 번성하고 인간을 아니 태와시면 꽃이 유은이라. 그리하건 꽃 사발을 난노아 주소서 (...) 소별왕이 말하되 이꽃은 어느때면 싹이 나고 꽃이 열이요. 형님 극낙세계 여행길을 도라 다녀서 노곤하지 안 하오 가 잡이나 잡시다 .
9	박봉춘 구연 <천지왕본풀이>	제주	은대야에 꽃을 들을 싱겨서 꽃이 잘 장성하는 사람은 인간을 차지하고 꽃이 잘 되지 아니한 사람은 지옥을 차지하라 (...) 읍서 형님 잡이내 잡시다 하고 누워 자는 채하고
10	김두원 필사 <천지왕본>	제주	이제랑 꽃을 신경봅시다 성제라 은동이에 꽃을신건 밤이누영자는데 성님앞엔 꽃은 만발하고 아시앗잇 꽃은 울꽃이 되어간다
11	고대중 구연 <천지도업>	제주	(...) 小별王이 “성任앗이 꽃은 繁盛 ㅎ되 내앗이 꽃동이는 점유을꽃이 되니 설운성任 우리가 목농성이잡을 자다가 꽃동이 繁盛되는 대로 수시常法 다시리기 언아어찌ㅎ오리까? ”
12	강일생 구연 <배포도업침>	제주	천지왕이 은 쟁반을 내어놓아 고씨 열 씨를 내어놓아 은 쟁반에 흠께로 놓와서 꽃을 싱겨봐라 (...) 등성하는 즈랑 인간을 느리곡 델망악심(滅亡惡心) 꽃 되는 즈랑 저승을 가라 (...:대별왕 심은 꽃은 번성하고 소별왕 심은 꽃은 악심꽃이 된다) 소별왕이 말을 흠 큰 성님아 읍서 우리 잡자명이나 홯을 췌겨 보게? 꽃 쟁반을 읍에 뇌두고 ㅎ는 말이 줍을 자당 모녀 이러나는 즈랑 인간을 훗이ㅎ고 늣좁 자는 ㄴ랑 저승 국을 갑시다
13	정주병 구연 <천지왕본풀이>	제주	“읍서. 설운 성님아. 계건 꽃이나 싱경 환성하고 번성하는 자랑그네 이싱법을 들어사곡, 감뉴을꽃 ㄸ는 자, 저승법을 들어사기 마련ㅎ기

			어찌호오리까?” “어서 결랑 기영하라.” “「바구왕」에 간 꽃씨를 훑는고나. 지부왕(地府王)에 가서 꽃씨를 타 단 은동이 늦동이 주수리남동이에 꽃씨를 싱겼더니, 설운 성님 싱근 꽃 번성꽃(繁盛花)이 튀고 죽은 아시 싱근 꽃 검뉴울꽃 튀얏고나.” “옵서. 성님, 즐심백이나 자 보기 어찌호오리까? ” “어서 결랑 기영하라.”
14	이무생 구연 <천지왕본>	제주	아시가 말을 호되, “계맨, 이번이랑 떠난 예측을 한번 더 쫓겨방 지는 제랑 저싱을 가기로 홉주, 이번이랑, 우리 교장을 싱경 교장 좋은 펜이 이싱을 츠지호기로 홉주.”

표 1 창세 신화 각편별 꽃 관련 내기 제안의 실제

위의 표에서 확인되듯, 사계의 통상적 지칭인 ‘꽃 피우기’는 무가 자체의 표현은 아니다. 어느 각편에도 ‘꽃 피우기 내기를 하여 보자’라든가, ‘꽃이나 피워 보자’라는 말은 없다. 내기의 실제 명칭으로 가장 흔한 표현은 ‘잠 자기 내기’, ‘내기 잠’ 등이다. 특히 <1>에서 <7>까지의 한반도 지역 창세 신화는 <1>과 <4>를 제외하면 모두 ‘잠 자기 내기’ 또는 ‘내기 잠’을 내기의 이름으로 명확하게 든다. 내기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않는 <1>과 <4> 역시, 결국은 ‘잠 자기 내기’, ‘내기 잠’ 계열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4>는 잠을 자는 동안 일어나는 현상에 따라 승자를 가리지는 제안이기에, 또 <1>도 잠을 잔다는 표현 대신 방에 같이 눕는다는 표현을 쓰기는 하나 역시 잠을 자는 일어나는 현상에 따라 승자를 결정하자는 제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명명되는 내기의 실제 내용은 ‘잠을 자는 동안 꽃이 피어나는 정황에 따라 승패를 가리자’라는 것이다. 그 내용이 내기 제안의 장면에 제시되는 각편도 있고 이야기의 전개상 내기의 실제가 그것이었음이 저절로 드러나는 각편도 있지만, 잠 자기 내기 혹은 내기 잠의 실제 내기가

잠을 자는 동안에 일어날 개화의 여부 혹은 정도라는 점은 공통적이다.

내기의 실제가 개화의 여부나 정도라는 점은 제주 지역의 창세 신화에 서도 같다. 이 지역에서는 아예 내기의 제안 장면에서 ‘꽃이나 심어 보자’라는 표현으로 ‘꽃 심기’ 내기가 제안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9>, <10>, <12>, <13>, <14>는 명백히 ‘꽃 심기’가 내기의 이름으로 등장한다. 이 가운데 <12>와 <13>은 꽃 심기에 이어 ‘잠 자면서 겨뤄 보자’(<12>)라거나 ‘잠심백’, 즉 ‘잠 겨루기’를 하자는(<13>) 내기가 등장하기도 하지만,⁷⁾ 이는 개화의 정도로 이미 승패가 갈린 상황에서 패자가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제안하는 내기이기에, 결국 이 두 각편의 내기도 꽃 심기 내기라고 할 수 있다.

제주 지역의 자료 가운데 내기 제안의 장면에서 잠을 자자는 표현이 등장하는 각편은 <11>이다. 꽃은 이미 짝패 두 사람 앞에 꽃이 핀 상태에서(“성任앞이 꽃은 繁盛히되 내앞이 꽃동이는 점유을꽃이 되니”) 잠을 자는 동안 꽃이 번성하는 것을 보아 승자를 결정하자(“목농성이잠을 자다가 꽃동이 繁盛되는 대로 수시常法 다시리기 언아어찌호오리까?”)는 것이다.

또 하나 특별한 각편으로는 <8>이 있다. <8>은 제주 지역 자료에서 내기 방식으로 거론되는 ‘꽃 심기’도, 한반도 자료의 공통적 명칭인 ‘잠 자기도 내기 제안 장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경쟁하는 짝패는 ‘꽃 심기’ 대신, 아버지인 천지왕이 나누어 준 꽃사발을 받아 그 번성 유무에 따라 승패를 가리기로 한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꽃이 피질 않으니, 피곤한데 잠이나 자자는 제안이 이어진다(“소별왕이 말하되 이꽃은 어느때면 싹이 나고 꽃이 열이요, 형임 극낙세계 여행길을 도라 다녀서 노곤하지 안하오 가

7) <8>, <9>에도 잠이나 자자는 제안이 있기는 하지만, 노곤하거나 기다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안되는 것이어서 내기의 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잠이나 잡시다”). 여기에서 잠은 내기의 형식이 아니라 꽃이 피기를 기다리다 못해 아우가 제안하는 휴식의 방법이다.

내기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방법은 다소의 편차가 있지만, 그 내기의 내용은 공통적이다. 누구에게⁸⁾ 꽃이 피어나는가, 혹은 더 번성하는가에 따라 승패를 가리자는 것이다. 선행 연구는 꽃이 피거나 번성하는 것을 경쟁하는 짝패의 ‘힘’이나 ‘능력’이 발휘된 것으로 보곤 한다. 그러나 ‘잠이나 자 보자’, ‘꽃이나 심어 보자’라며 제안되는 내기는 공통적으로, 경쟁하는 짝패의 의식과 행동이 ‘쉬는’ 상태인, ‘잠을 자는 동안’에 일어날 꽃의 개화 여부나 정도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잠의 시간은, 경쟁하는 짝패의 능력이나 행동이 발휘될 수 없는 시간이다. 그러니 개화는, 짝패 가운데 생명을 좌우하는 능력이 있는 자의 행위에 의한 결과가 아니다. 각편 가운데에는 꽃씨를 심어 어느 쪽에 심은 꽃씨에서 꽃이 피어나는가를 보자는 것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짝패는 꽃씨에서 꽃이 피어나기를 기다릴 뿐이다. 아무리 피어도 피어나질 않으니 쉬기도 할 겸 잠을 자고, 그 사이에 꽃이 피어난다.

이런 점을 주목하면, 내기의 내용은 경쟁하는 짝패가 꽃을 피워내어 꽃, 즉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창조력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승패를 정하는 것이라 하기 어렵다. 내기의 내용은, 누가 인간 세상을 차지할 만한가, 누가 인간 세상을 차지해 마땅한가, 누가 인간 세상을 차지할 능력이 있는가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잠을 자는 동안 꽃이 피는 것을 보아’ 누가 과연 그럴 만한가를 확인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짝패가 꽃을 피워내는 게 아니라 짝패가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이 내기의 실상에 가깝다. 꽃은, 누군가의 힘에 의해 피어나는

8) ‘누구에게 꽃이 피는가’로 묶어낸 내용들은 누구의 무릎에 꽃이 피는가, 누구 앞에 꽃이 피는가, 누구 앞에 놓인 화분에 꽃이 피는가 또는 번성하는가 등등이다.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피어나⁹⁾ 누가 진정한 자격이 있는 자인가를 말해주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내기의 실제는 누가 인세를 차지할 만한가를 꽃이 피는 것을 보아, 즉 꽃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꽃을 피워내어 짝페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어야 할 정도로 누구에게 능력이 있는가를 가리기 어려울 때 꽃을 선택과 판단의 주체로 불러 올리는 것이다. 스스로 피어나 누가 진짜인가를 가리는 꽃, 이것이 내기 장면에서의 꽃의 실체다.

이러한 양상은 무가 아닌 설화 형태로 전승되는 이야기에서도 확인된다. 꽃은, 누군가에 의해 피어나는 대상이 아니라 그 스스로 피어나는 존재다.

전에 유도허구 불도허구 나글(내기를) 했는데 서루 눈을 딱 감구 인제 앉았 으며는 누 무릎에서 꽃이 먼첩 피나, 인제 이걸 나글 했어.(…)10)(밑줄 필자)

(…)미륵보살하고, 석가여래보살하고, 관음보살하고 서이드러(셋이서).
(…) “자, 물팩이(무릎을) 모두 꿇아 앉어라. 꽃이 여[무릎을 가리키며] 머너 피그딜랑 법을 잡기로 하자.”(…)11)(밑줄 필자)

유도와 불도 사이의 내기, 미륵과 석가와 관음 사이의 경쟁에서, 누구의 무릎에 꽃이 피어나는가에 따라 승자를 가려보자는 내용이다. 꽃이 펴

9) 꽃의 개화를 위한 조건을 좋게도, 또 나쁘게도 만들 수는 있어도, 개화 여부는 결국 꽃 스스로의 힘에 따른다. 꽃이 ‘스스로’ 핀다는 것은 이런 의미다. 꽃의 생명력이 누군가의 소유라면, 그 누군가는 단지 꽃 그 자체다.

10) 최유봉 구연 <유도와 불도>, 김헌선(1994), 앞의 책, 482쪽.

11) 박동준 구연 <세 보살의 시합>, 김헌선(1994), 위의 책, 484쪽.

으로써 승자가 가려지는 것이니, 승자가 누구인가는 꽃이 결정한다는 말이다. 다음 각편은 ‘가다’, ‘오다’라는 동사의 주어 자리에 꽃이 놓이기에, 선택의 주체로서의 꽃의 면모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여기에서 경쟁의 주체는 ‘기도’하면서 꽃의 선택을 기다린다. 다시 말해 이는 꽃에게 판단을 해달라고 서원하는 것으로, 꽃에게 판단을 맡기자는 의도 역시 분명하다.

(…), 그 두분(미륵불과 석가모니불:필자)이 인제 약속하기를 연꽃을 두 송이를 각자 앞에 놔두고, 그래서 인제 그 요즘 말하자면 어 기도를 드렸다 하나, 그래 드리, 드리가지고, 그 연꽃이 인제 석가모니 앞으로, 저 석가모니 그 앞으로 연꽃이 가며는 석가모니가 먼저 포교를 하기로 하고, 또 미륵불 앞으로 연꽃이 오며는 미륵이 에 즉 말하자면 에 포교를 하도록 이렇기 두 분이 약속을 해 가지고 기도를 하는 중에, 연꽃이 그 미륵불 앞으로 오는 것을 옆에 있던 석가모니가 고마 그 자기가 잡아채었어.¹²⁾(밑줄 필자)

한편, 다음의 사례는 잠을 자면서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은 누가 승자인가를 ‘지정(指定)’해 주는 것을 기다리는 의미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 준다.

(…) 석가모님은, 석가모님이 도(道)로 먼저 피고(피고) 쬐고(쬐고), 미륵존불님은 미륵존불님이 머이(먼저) 피고 지븐데(쬐은데), 머이 피고 지븐데, 가만히 생각하이 하늘 땅 양 사이에서 도 피올라고 나온 분이 서로 싱강이(실랑이) 해도 안 되고 그래,

“우리 청강대에 가여(가서) 석 달 열흘을 잠을 자자. 석 달 열흘 잠을 자며 (자면) 우리가 누가 도로 피든지, <가> 하늘서 지정(指定)을 하든지, 땅아 (에) 지하서 지정을 하든지 할 끼다.”

12) 박상근 구연 <미륵보살과 석가모니불>, 김현선(1994), 위의 책, 487쪽.

이래 인자 (….) 그러이 석 달 열흘째 잠을 자는데 (….) 석가모님이 눈을
 머이 떠 가지고 이래 딱 보이끼네(보니까), 미륵존불, 저 미륵존불님 도(道)
 머이 피라고 뱃구녕(배꼽)에다 배꽃을 [손으로 꽃 모양을 만들어 보이며] 이
 래 놔 놔어. 응, <나> 도 피라고. 응, <다> 하를 천상에서 배꽃을 이래
 딱 놔 놔는데.(….)¹³⁾(밑줄 및 가, 나, 다 기호 표기는 필자)

위의 사례에서 꽃은 ‘하늘의 지정’, 즉 하늘의 선택을 보여주는 표지로
 기능한다. 누가 도를 ‘펼(펼)’ 것인지는, 잠을 자다 보면 하늘이 지정하든
 땅이 지정하든 결정이 있으리라 생각하고(〈가〉) ‘석가모님’과 ‘미륵존불
 님’은 잠을 잔다. 석 달 열흘째 잠을 자는데, ‘하늘 천상’에서 배꽃을 미륵
 존불님 배꼽에다 둔다(〈다〉). 미륵존불님이 도를 먼저 먼저 펴라는 뜻
 이다(〈나〉). 하늘의 지정을, 배꽃의 개화로 알려 주는 것이다. 꽃은 하늘
 이 선택한 자 앞에 피어난다. 배꽃의 개화는 경쟁하는 짝패의 힘이 작동
 한 결과가 아니라 하늘의 선택이 드러난 결과다. 다시 말해 경쟁하는 짝
 패는 ‘꽃 피우기’의 주체가 아닌 것이다.

창세 신화에서 꽃이 등장하는 내기는 경쟁하는 짝패 중 누가 꽃을 ‘피
 워낼’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다시 말해 누가 꽃을 피워내는 능력을 지니
 고 있는가를 시험하는 내기가 아니다. ‘잠자기’ 내기이든 ‘꽃 심기’ 내기이
 든, 꽃은 짝패의 힘이나 능력이 발휘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짝패 가운데 누가 승자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다. 그러므로 내기
 의 핵심은, 누가 꽃을 피워내는가에 있지 않고 꽃에게 누가 승자인가를
 가리게 하자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내기의 형식이 무엇이든,
 또 내기를 일러 무엇이랴 지칭하든 간에, 그 내기의 본질은 ‘경쟁하는 짝
 패 가운데 누가 승자인가를 꽃에게 물어 가려보자’라는 데 있다.

13) 이일창 구연 <석가모니가 득도한 사연>, 김현선(1994), 위의 책, 489~490쪽.

반복하건대 꽃이 피어남으로써 누가 승자인가를 가리게 되는 이러한 내기는, 누가 승자인가를 판별해 달라고 꽃에게 의뢰하는 내기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내기들을 아울러 ‘꽃에게 묻기’라는 이름으로 지칭하기로 한다.¹⁴⁾

3. ‘꽃에게 묻기’의 유형화 가능성

1) 유형의 유래: 〈할망본풀이〉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무속 신화 가운데, ‘생불할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생불할망은 사람들에게 임신을 시키고 그들의 출산을 돕는 신격이다. 본풀이에 따르면 ‘명진국 따님아기’라는 처녀가 이 신직을 맡아 생불할망이 되었다는데, 각편에 따라서는 명진국 따님아기가 ‘동이용궁 따님아기’와의 갈등과 경쟁을 거쳐 생불할망의 자리를 차지했다고도 한다.¹⁵⁾ 이 각편에 따르면 생불할망의 자리를 두고 두 따님아기가 경쟁한 셈이니, 인세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다툰 창세 신화의 짝패의 경쟁을 떠올리게 한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이들의 경쟁에도 꽃이 등장한다. 명진국 따님아기가 ‘생불왕’으로 들어서라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데, 역시 인간 세상의 생불왕으로 온 동이용왕 따님아기를 만난다. 상

14) 여기에서 판단의 주체로 기능하는 꽃은 누가 진짜인가, 누구에게 자격이 있는가를 가려낼 수 있는 존재다. 여기에서 꽃의 능력은 진실을 꿰뚫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이 무속 신화에서 꽃이 일반적으로 상징하는 ‘생명’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는 더 논의해야 할 과제이나, 여기에서는 꽃이 지니는 생명으로서의 ‘순수’가 ‘삿됨’의 개입없이 진실에 가 닿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덧붙이는 데 그친다.

15) 안사인 구송 <할망본풀이>.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개정판, 각, 2007, 97~102쪽.

황을 알게 된 동이용왕 따님아기가 화를 내자, 명진국 따님아기는 옥황상제의 분부를 따르자고 제안한다. 다소 긴 인용이 되겠지만 그 이후의 내용을 원문대로 옮겨 본다.

“우리 어디서 응 하지 말고 옥황상제 분부대로 하기가 어찌 하겠느냐?”

“어서 걸랑 그리 하자.”

노각성즈부줄로 옥황상제에 올라가니 옥황상제이 말을 하되,

“너이덜 얼굴 보진디는 어느 누게 구별홀 수 엇어지고, 생불 환생 주는 디도 어느 누게 구별홀 수 엇어진다. 천계왕을 불르라. 벽계왕을 불르라. **꽃씨 두 방울을 내어주진 서천서약국 계모살왓디 꽃씨 두 방울을 싱정 꽃변성 하는 대로 생불왕을 구별하리라.**”(밑줄 필자)

계모살왓디 꽃씨를 드렸더니 고장 번성하는 것이 동이용궁 따님애기 꽃은 보난 불리도 웨블리 가지도 웨가지 송애도 웨송애 금뉴울꽃 돼고 명진국 꽃은 보난 불리는 웨블리요, 가지 송앤 스만 오천 육백 가지 번성웨난 옥황상제이 꽃변장을 가니, 옥황상제이 말을 하되,

“동이용궁 꽃은 보난 금뉴울꽃이 되니 저승할망으로 들어사국, 명진국 꽃은 보난 번성꽃이 돼니 인간할망으로 들어사라.”

동이용궁 따님애기 성식을 별딱 내명 명진국할망 꽃을 상가지로 오독독 거꺼 앓으난,(밑줄 필자) 인간할마님이 말을 하되,

“무사 나 꽃 상가질 거끄느냐?”

동이용궁따님애기 말을 하되,

“인간에 생불을 주꼭 환생을 주영 석 들 열홀 백일이 돼민 정풍 정세 느진 듯 벼똥듯 열두풍문을 주영 언어 먹겠노라.”(밑줄 필자)

인간할망이 말을 하되,

“그리 말고 우리 조은 믿음하기 어찌 하겠느냐? 내 인간에 느려상 생불을 주민 저승결례 아홉자도 저인정 걸어주마, 절례삼승 업계삼승 저인정 걸어주마. 아기어명 현페머리 똥든 적삼 똥든 치매 저인정 걸어주마.”(밑줄 필자)

“어서 결랑 그리호자.”(밑줄 필자)

동이용궁 따님애긴 저승으로 올라사고 인간맹진국 할마님은 인간으로 누려 살 때 서로 작별잔을 지녕기자.(…)16)

생불왕의 자리는 하나인데 그 자리를 맡기 위해 두 명의 따님아기가 인간 세상에 나온다. 생불왕의 자리를 두고 두 따님아기가 경쟁하는 양상이다. 옥황상제의 말을 따르기로 한 두 따님아기에게, 옥황상제는 ‘꽃씨 두 방울을 줄 테니 심어 보라’라고 한다. 꽃이 피는 것을 보아 생불왕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장면에 보이는 경쟁은 ‘꽃 가꾸기’라고 지칭되기도 한다.¹⁷⁾ 누가 꽃을 잘 가꾸는가에 따라 생불왕을 정하자는 것으로 읽는 것이다. 그런데 위 본풀이의 문면에서 두 따님아기는 꽃씨를 심었을 뿐 그것이 피어나는 데 특정한 행위를 더하지 않는다. 누가 더 꽃을 잘 가꾸는지 그 능력을 보자는 게 아니라,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고 누가 승자인가를 판단해 보자는 제안인 셈이다. 제주 지역 창세 신화에 보이는, 이른바 ‘꽃 심기’ 내기를 포함한 ‘꽃에게 묻기’ 서사를 위의 각편에서도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위의 각편은 창세 신화의 서사와 그 결말이 다소 다르다. 창세 신화에서는 꽃의 판단을 먼저 본 이가 꽃을 바꿔치기하여 꽃의 선택과는 다른 결과에 이른다. 꽃의 선택에 따른 승자는 마땅히 차지해야 할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패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위의 각편에서 이러한 ‘사기’는 일어나지 않는다. 꽃의 선택대로, 맹진국 따님아기가 이승의 생불왕이 된다.

16) 현용준(2007), 위의 책, 101~102쪽. 원문에서 괄호 안에 병기된 한자는 생략한 채 인용하였다.

17)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52~55쪽. 강정식, “생불할망본풀이”, 『한국민속문학사전-설화1』, 국립민속박물관, 2012.

그러나 꽃의 선택대로 승패가 결정된 것은 그 선택을 받지 못한 동이용왕 따님아기가 순순히 꽃의 판단에 따라서가 아니다. 동이용왕 따님아기는 명진국 따님아기가 심은 꽃씨에서 번성한 꽃들을 꺾어버리며¹⁸⁾ ‘인간에 생불을 주고 환생을 주’는 생불왕으로 자기 자신이 들어서겠다고, 심지어는 아이들에게 온갖 질병을 주기까지 하는 신격으로 들어서겠다고 선언한다. 꽃의 선택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명진국 따님아기가 꽃의 선택대로 이승의 생불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명진국 따님아기가 동이용왕 따님아기에게 사람들이 인정을 거는, 즉 사람들이 제향하는 또다른 신격인 저승할망 자리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꽃에게 물어 승자를 가리기로 했지만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자에게 또다른 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결국은 꽃의 선택이 관철된다는 것, 다시 말해 불복하는 자를 달랠으로써 꽃의 선택대로 행한다는 것이 위의 각편에서 확인되는 ‘꽃에게 묻기’ 서사가 보여주는 창세 신화와의 차이점이라 하겠다.

‘꽃에게 묻기’라는 화소가 저승 할망(구삼승 할망)으로 좌정하는 동이용왕 따님아기의 내력을 풀이하는 모든 각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도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동해 용왕 동경국 따님애기’, 즉 동이용왕 따님아기가 명진국 따님아기와 같은 삼승 할망이 되지 못하고저승 할망이 된 연유를 달리 설명하는 한 예를 보자. 김매옥 심방의 구연본이다.

(…)

“불쌍하다, 는 이제랑

18) 꽃은 피어나기는 스스로 하지만, 피어난 이후에는 누군가에 의해 꺾일 수 있다. 꽃의 상징성을 고찰할 때 이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저승할망으로 들어스라.”

“무사 난 옥황의 맹진국 얘기만이,

인격이 못나면 얼굴이 부족하면

저승할망으로 가렌 함염쑈과?(밑줄 필자)

미신 일로 소녀는

저승을 가렌 함염쑈가?”

“아멩함여도는

삼구월 초아으렛날사 낭부난

저승할망으로 백인 아니된다. (밑줄 필자)

경함메 이제랑

옥황상제님의 복단맹 고장을

느가 츠지하라.”

“게멘, 흘 수 웃이

막무관아니우다.”

그영함연

동해용궁 따님 얘기가

저승할망으로 갈라솔 때엔

삼구월 초아으렛날

아옵 구천왕을 거느리고

붉은그새에 붉은츄셀에

저승 구천낭괴할망을 거느리고

저승으로 들어갔수다. (...)¹⁹⁾

저승 할망이 되라는 말에 동이용왕 따님아기는 반발한다. 인격이며 얼굴이며, 명진국 따님아기보다 못할 게 없는데 저승 할망으로 들어서라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이용왕 따님아기는 ‘아무래도 너는

19) 김매옥 구송 <저승할망본>.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140쪽.

삼구월 초아흐렛날 태어났기에 저승할망밖에 될 수 없다’라는 말을 듣는다. 그 태어난 날 때문에, 다시 말해 ‘운명’ 때문에 저승 할망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안사인 구송본에서 명진국 따님아기와 동이용왕 따님아기의 경쟁이 꽃을 가꾸어내는 능력 대결이 아니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인격이나 얼굴과 같은 현재의 모습이 생불 할망의 자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점은 두 아기의 경쟁이 능력 싸움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동이용왕 따님아기는 태어난 날 정해진 운명으로 생불 할망이 될 수 없고, 옥황상제는 동이용왕 따님아기가 명진국 따님아기보다 못하지 않은 인격과 얼굴을 지녔지만 그 운명을 깨물어 보고 저승할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꽃의 판단이 여기에서는 옥황상제의 판단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실제 의례의 현장에서 두 할망 신격의 내력이 합쳐져 하나의 본풀이처럼 구송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는 각기 다른 신격에 대한 본풀이가 의례적 필요성에 따라 함께 구연될 필요가 있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²⁰⁾ 두 신격의 내력을 하나의 서사에 녹여낸 것이 위의 각편 들어라고 할 때, 각기 다른 신격을 맡게 된 연유는 김매옥 구송본처럼 ‘태어난 날’의 운명으로 해명되기도 하고 안사인 구송본처럼 ‘꽃에게 묻기’ 서사를 동원함으로써 그것이 꽃의 선택과 삼승 할망의 배려에 의한 것으로 해명되기도 한다. 이러한 서사적 다양성은 두 신격의 이른바 ‘분직’ 내력을 풀어내는 서사에 대해 어느 서사가 더 적절한 서사인지를 아직 신화전승 집단의 ‘공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뜻하는 현상일 터다. 여기에서는 다만, 짝패의 경쟁과 그 승패를 결정하는 데에 ‘꽃에게 묻기’가 동원되는 사례를 <할망본풀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을 확인해 둔다.

20) 강정식, 『할망본풀이의 전승양상』,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 발표자료집』,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및 강정식(2012), 앞의 글 참조.

2) 유형의 선례: 『월명사 도술가』의 <도술가> 배경 설화

『삼국유사』 소재 『월명사 도술가』의 <도술가> 배경 설화는 사양(射陽) 신화나 일월 조정 신화의 맥락에서 논의된 바 있다.²¹⁾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떤 자리나 지위를 두고 경쟁하는 이들이 꽃에게 물어 그 승자를 결정한다는 ‘꽃에게 묻기’ 서사의 틀로도 읽어낼 수 있다. 다음은 『삼국유사』의 『월명사도술가』조에서 <도술가>의 배경설화 부분만 발췌·요약하여 옮겨 본 것이다.

경덕왕 19년 경자(760) 4월, 초하룻날에 해 둘이 나란히 나타나더니 열흘이 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일관(日官)이 주청하기를 인연이 닿는 중(緣僧)을 청하여 산화공덕을 베풀면 번고가 없어지리라 하였다. 조원전에 단을 깨끗이 마련하고 왕이 청양루에 거둥하여 연승을 기다렸는데, 마침 월명사가 지나가기에 불러 기도를 하라고 시켰다. 월명이 “신승은 국선(國仙)의 무리에 속해있어 다만 향가만 해득하였고 성범(聲梵)에 서투릅니다(不閑聲梵).”라고 사양하자, 왕이 향가를 허락하였다. 월명이 이에 <도술가>를 지어 부르니 해의 괴변이 사라졌다. 왕이 차와 염주108개를 내려주었는데, 왕도 월명사도 모르는 한 동자가 이것을 받아 나갔다. 동자는 내원 탑 속으로 사라지고, 차와 염주는 남쪽 벽 미륵상 앞에 놓여 있었다. 월명사의 지극한 덕과 지극한 정성이 지성(至聖)을 비춤이 이와 같았음을 알게 되니, 서울과 시골 할 것없이 소문이 퍼졌다. 왕이 더욱 그를 존경하여 다시 비단 100필을 주어 크나큰 정성을 표창하였다.

하나여야 마땅한 해가, 두 개나 하늘에 뜨는 이상 현상이 발생한다. 이 때 일관(日官)이 제안한 것은 ‘산화공덕’이고, 그 의례를 거행할 ‘연승’으

21) 현웅준, 『月明師 兜率歌 背景說話考』,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집문당, 1992(초출: 『韓國言語文學』 10, 韓國言語文學會, 1973) 및 조현철(2014), 앞의 글 참조.

로 선택되었으나 성범, 즉 범패에 익숙하지 못하다고 자인한 월명이 부른 것은 <도솔가>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도솔가>라는 노래의 가사에는 ‘꽃’이 등장한다. 두 개의 태양이 나타나는 이른바 ‘이일병현(二日竝現)’의 문제적 상황에서, 의례와 노래 속에 다름아닌 ‘꽃’이 소환된 것이다.

위의 배경 설화나 <도솔가>에서 꽃이 불러올려진 까닭은 종종 꽃이 미륵을 모시는 수단이기 때문으로 이해되곤 한다. 꽃이 미륵을 모시는 연화좌를 상징한다는 견해²²⁾ 꽃은 미륵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라는 견해²³⁾ 일찍이 제기된 바 있고, <도솔가>가 꽃에게 미륵을 모시라고 하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고 하는 지적²⁴⁾ 등을 비롯하여 <도솔가>에 대한 최근의 연구 성과는 대체로 꽃을 미륵을 모시는 수단으로 보는 듯하다.²⁵⁾

그런데 ‘이일병현’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꽃’을 소환하는 장면은, ‘꽃에게 묻기’ 화소와 겹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해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두 개의 해가 떴다. ‘이일병현’의 ‘변고’가 열흘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은, 진정한 해는 누구인가를 두고 두 개의 해(하나는 진짜 해이고, 다른 하나는 가짜 해인)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에 다름 아니다. 둘 가운데 하나는 진짜 해가 아님이 분명하지만, 그런데 어느 해가 진정한 해인가는 알 길이 없다. 이 상황에서, 일관도 ‘산화공덕’이라는 이름으로 ‘꽃’을 소환하고, 성범(聲梵)에 서툴다며 향가를 부른 월명사도 노래 속에서 ‘꽃’을 소환한다. 진정한 해의 자리를 두고 두 해가 경쟁할 때 누가 진정한 해인

22) 양희철, 『月明師의 『兜率歌』와 그 關聯說話 研究』, 『人文科學論集』 8, 1989, 8~9쪽 참조.

23) 이도흠, 『도솔가의 和諍詩學的 研究』, 『고전문학연구』 8, 1993, 86~87쪽 참조.

24) 조현설(2014), 앞의 글, 129쪽.

25) 예컨대 황병익, 『산화(散花)·직심(直心)·좌주(座主)의 개념과 <도솔가(兜率歌)> 관련설화의 의미 고찰』, 『韓國古詩歌文化研究』 35, 2015 및 김기중, 『<도솔가>, 불국토의 선언』, 『韓國詩歌研究』 38, 2015는 꽃을 미륵이 내려와 앉을 좌대 혹은 화대로 간주한다.

가를 꽃에게 물어보기 위해 ‘산화공덕’을 제안하고 ‘도술가’를 불렀다고 볼 수 있다면, <도술가> 관련 설화는 ‘꽃에게 묻기’ 화소로 묶을 수 있는 다양한 변이태들 가운데 하나일 수 있을 것이다.²⁶⁾

그 변이의 양상을 ‘꽃에게 묻기’라는 틀에서 파악해 보자. 먼저, 꽃에게 묻는 상황을 초래하는 짝패의 경쟁은 ‘이일병현’의 현상에 대응한다. ‘이일병현’은 이 일이 있었던 경덕왕 때 있었던 시중 염상의 왕권에 대한 도전을 약호화한 상징체계라는 선행 연구에²⁷⁾ 기대면, <도술가>와 그 배경 설화에서 짝패의 경쟁은 그 구체적 내용이 더욱 선명해진다. 나란히 뜬 두 해는 ‘왕권’ 혹은 ‘왕위’를 차지할 것을 두고 다투는 짝패인바, 결국 ‘이일병현’은 누가 왕좌를 차지할 것인가, 다시 말해 누가 진정한 왕인가를 두고 짝패가 경쟁하는 양상인 셈이다.

창세 무가에서는 잠자기나 꽃 심기 등의 내기를 통해 누가 인세를 차지해야 하는가를 꽃에게 묻는다. 아직 각기 차지해야 할 곳이 정해지지 않은 미륵과 석가, 대별왕과 소별왕은 스스로의 제안, 혹은 제3자인 천지왕의 제안에 따라 그 내기에 직접 참가하여 꽃의 판정을 기다린다. <도술가>의 배경 설화에서 이러한 무가의 ‘내기’에 해당하는 것은 일관히 제안한 산화공덕의 의례이다. 이미 해가 있는 상황, 즉 왕좌를 차지한 왕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해가 떠서 왕이 과연 그 자리에 있을 만한가 문제를 제기하는 셈이니, 왕은 조원전에 단을 마련하여 청양루에 거둥하여 꽃에게 묻는 의례의 자리에 나아간다. 짝패가 잠을 자거나 꽃을 심어 꽃의 선

26) 산화공덕의 ‘꽃’과 <도술가>의 ‘꽃’은 서로 다른 맥락적 의미를 지녔으며 의례의 시공에서 교차하며 접점을 이룬다. 이러한 교차와 접점의 구체적 양상과 의미에 대해서는, <도술가>의 신화적 해석을 시도할 별고에서 다루기로 한다. 미륵과 꽃을 매개로 무불의 관계를 해명하려 한 조현설(2014)의 글, 또 조현설의 글에 대해 김기종(2015), 앞의 글, 228쪽에서 제기한 문제 등은 별고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27) 이도흠(1993), 앞의 글, 73~76쪽 참조.

택을 기다렸듯, 왕은 의례를 통해 꽃의 선택을 기다린다.

무가에서 꽃의 선택은 진정한 승자에게 피어나는 것으로 구현된다. 무릎 등의 신체에 피어나기도 하고, 승자의 꽃동이에 가득 번성하기도 한다. 꽃의 선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양상은, 그러나 <도술가>의 배경설화에서는 단순하지 않게 그려진다. 월명사가 <도술가>라는 노래로 꽃을 불러내어 판단을 맡긴 후, 꽃은 서사의 무대에 다시 출현하지 않는다. 그 대신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떠 있던 괴이한 현상이 사라진다(‘일괴즉멸’). 과연, 꽃은 누구를 선택한 것인가?

꽃의 선택을 묻는 꽃 의례를 준비하고 꽃 노래를 행할 ‘연승’을 기다린 것은 왕이었고, 의례의 목적 역시 왕권에 대한 부정이나 의심의 징표인 ‘이일병현’의 현상을 없애는 것이었다. 꽃 의례와 꽃 노래를 통해서도 ‘이일병현’이 여전했다면 꽃이 그 현상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셈일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일병현’은 사라졌으니, 꽃이 ‘이일병현’의 손을 들어 주지 않은 것이다. 왕권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마련된, 꽃의 판단을 묻는 의례는 현재의 왕권이 유효함을, 왕이 승자임을 확인하면서 끝났다.²⁸⁾ 꽃은, 현재의 왕과 그 왕위에 오르려는 자 가운데 현재의 왕을 선택했던 것이다.

일괴즉멸 후 왕은 차와 염주를 내린다. 아마도 <도술가>를 불러 꽃을 소환한 월명에게 하사한 것일 터인데, 한 동자가 갑자기 나타나 그것을 받는다. 동자가 가져간 염주와 차는 다름 아닌 벽화의 미륵상 앞에서 받

28) 왕이 꽃 의례와 꽃 노래를 직접 행하지 않고 그것을 거행할 ‘연승’을 기다린 것은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일 터다. 결국 그것은, ‘일괴즉멸’의 결과가 얼마나 공정한 판단의 결과인가를 과시하는 효과를 지니게도 된다. 왕권을 두고 벌어진 경쟁 양상에 ‘의례적 중지부’를 찍을 수 있었던바, 경덕왕이 마련한 꽃 의례는 꽃에 의탁한 왕권 강화의 이벤트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의 ‘의례적 중지부’가 현실적인 갈등을 해결했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견된다. 미륵의 현현, 미륵 하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곤 하는 부분이다. 미륵 하생이라는 불교적 관념은 미륵 보살이 이상적 군주 전륜성왕(轉輪聖王)이 다스리는 세계에 하생하여 정각(正覺)을 성취하고 미륵불이 되어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이다.²⁹⁾ 따라서 이 세상에 미륵이 하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이상적 통치자인 전륜성왕의 통치 하에 이상 세계가 구현되었을 때 비로소 미륵은 하생하는바, 미륵이 현현했다는 것은 당대의 국왕이 전륜성왕임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³⁰⁾ 요컨대 미륵의 현현이라는 기표는 당대의 국왕을 전륜성왕으로 의미화하여 왕권을 절대화하는 기호로 작동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미륵 하생의 이야기는 ‘일괴즉멸’로 표명된 꽃의 선택 결과를 미륵의 현현이라는 불교적 기호를 끌어옴으로써 그 승패의 양상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술가> 배경 설화는 ‘이일병현’이라는 기이한 현상의 해결을 ‘산화공덕’이라는 불교적 방법으로 모색하려 한다. 그러나 그 의례를 집전할 ‘연승(緣僧)’으로 의례에 등장한 이는 승려라고는 하나 불교 의례의 노래인 ‘범성’을 모르는 ‘국선(國仙)’의 무리에 속한 월명사였다. 이에 따라, 불교적 해결을 위해 마련된 산화공덕의 장(場)은 ‘범성’을 익히지 않은 국선 지도의 승려에 의해 범성 아닌 ‘향가’가 구연되는 장소로 전환된다. 향가의 힘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승자를 가릴 꽃이 소환되고 꽃의 선택에 의한 ‘일괴즉멸’로 ‘이일병현’의 문제가 사라졌을 때, 미륵이 현현한다. 공간을

29) 김석근, 『전륜성왕, 미륵, 그리고 메시아-미륵신앙의 정치적 기능과 함의에 대한 시론적 접근』, 『동양정치사상사』 9, 2010, 9~11쪽, 김기중(2015), 앞의 글, 241쪽 및 243쪽 참조.

30) 진흥왕 이후부터 왕권의 정당화 기제로 활용된 전륜성왕 개념은 이후 미륵불상을 만들거나 화랑을 미륵의 화현(化現)이라 봄으로써 미륵의 하생을 가시화하는 데 이른다. 김석근(2010), 위의 글, 14~15쪽.

지배하는 종교적 아우라는 이 지점에서 다시 불교적인 것으로 바뀐다. 요컨대, 미륵의 현현은 국선의 방법을 통해 얻은 ‘일괴즉멸’의 결과가 당대를 지배하던 불교적 차원에서 승인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읽는다면, 승패의 양상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터다.

창세 신화와 견줄 때, 꽃의 선택 결과에 대한 이러한 대응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창세 신화에서 꽃의 선택은 선택을 받지 못한 자에 의해 반복된다. 꽃의 선택이 반복되지는 않았지만 <할망본풀이>에서도 꽃의 선택을 받지 못한 동해용왕 따님아기의, ‘폐악질’이라 할 만한 반발적 대응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도술가>의 배경 설화에서는 그렇지 않다. 꽃의 선택 순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선택은 즉각 ‘일괴즉멸’로 표명되며, ‘미륵 하생’은 ‘일괴즉멸’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한편 그 선택의 정당성에 무게를 더하며 선택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수용되었음을 보여준다.³¹⁾ 창세 무가에 나타나는, 선택 결과에 대한 반발이나 사기를 통한 불복이, ‘꽃에게 묻기’ 서사의 필수 요소가 아님을 짐작해 볼 수 있다.

3) ‘꽃에게 묻기’의 구성 양상

구비 창세 신화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꽃에게 묻기’ 서사를 그 유례와 선례에 견주어 본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사회적 수용은 선행 연구에서 ‘화쟁’이라 지칭했던 것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도술가>와 그 배경설화를 화쟁으로 파악한 선행 논의로 이도흠(1993), 앞의 글 및 조현설(2014), 앞의 글 참조.

	경쟁	판단 의뢰	판단 결과	수용 여부		
				수용		거부
				동의	조정	
창세 무가	작패의 인세 차지 경쟁	내기	개화	×	×	꽃 바뀌치기
<할망본풀이>	작패의 생불왕 차지 경쟁	내기	개화	×	저승 할망 되기	×
<도술가> 배경설화	이일병현	꽃의례와 꽃노래	일괴즉멸	미륵 현현	×	×

표 2 '꽃에게 묻기' 서사 유형의 구성 요소와 서사적 구현의 실제

서사의 발단은 한 자리를 두고 다투는 작패로부터 시작된다. 하나의 해의 자리를 두고, 하나의 생불왕 자리를 두고, 하나의 인세를 두고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다투는 경쟁이 비롯되는 것이다. 이 경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꽃에게 묻기'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대로, 누가 그 자리의 주인인가는 꽃에게 물어 결정하기로 한다. 꽃의 판단과 선택을 위해 잠의 시간이 마련되기도 하고, 꽃을 심어 기다리는 시간이 준비되기도 하며, 의례의 시공이 펼쳐지기도 한다. 어느 것이든, 꽃에게 선택을 의뢰하고 판단을 기다린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물음에 응답하여, 꽃은 승자와 패자를 가린다.

여기까지는 창세 무가와 두 따님아기의 경쟁이 등장하는 <할망본풀이>, <도술가> 배경 설화가 공유하는 것이다. 변이 양상이 심한 것은 꽃의 선택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다루는 이야기의 결말 부분이다. <도술가> 배경 설화에서는 꽃의 선택이 확인되는 순간 '일괴즉멸'하여 패자가 꽃의 선택을 따르고, '미륵 현현'이라는 형태로 다시 한 번 결과가 강조되어 사회적 승인이 이루어진다. 꽃의 판단에 대한 전면적이고 절대적인 수용 양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꽃의 판단이 지나는 이러한 절대성은 무가에서는 매우 약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창세 무가에서는 꽃의

선택을 받지 못한 패자가 꽃이 피어난 위치를 바꿔놓음으로써 꽃의 판단을 거부한다. <할망본풀이>에서도 패자는 승자에게 피어난 꽃을 꺾어버리며 불복을 선언한다. 꽃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불복하려는 패자를 달래어 저승 할망 자리를 약속한 승자의 조정 덕분이다.

요컨대 ‘꽃에게 묻기’ 서사의 유형적 공통성은 경쟁의 상황에서 꽃의 판단을 묻고 꽃의 선택을 기다려 누가 승자인가를 가리는 데에서 확인되며, 꽃의 선택 이후 그 선택을 받아들이는가의 여부는 일률적이지 않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꽃에게 묻기’ 서사 유형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작패의 차지 경쟁 → 꽃에게 승자 판별 의뢰 → 꽃의 판단과 선택 ⇒ 수용·조정·거부

꽃에게 판단과 선택을 맡겨 승자를 결정하기까지의 공통적 서사 흐름이 반복된다는 것은, 판단 및 선택과 관련되는 꽃의 어떤 상징성이 이러한 서사로 구현됨을 뜻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서사의 결말이 일률적이지는 않다. 아마도 판단하는 꽃의 상징성을 대하는 인식의 차이, 그 절대성의 온도 차가 이러한 결말의 한 원인인 듯한데, ‘꽃에게 묻기’의 서사적 구성요소를 반복적인 유형으로 파악하되 그 결말의 다양성이 의미하는 바를 마저 고찰할 수 있다면 ‘판단하는 꽃’이라는 꽃의 상징성에 대한 신화적, 문학적 수용 양상에 대한 해명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논의가 더 필요하나, 여기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지적해 두는 데 그치기로 한다.

4. 꽃의 신화학: ‘꽃에게 묻기’ 유형화의 연구사적 효용

‘꽃 피우기’, ‘꽃 가꾸기’ 등으로 명명되어 온 창세 신화의 삽화적 서사는 ‘꽃에게 묻기’라는 이름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이러한 유형화를 통해 경덕왕대 <도술가>와 그 배경 설화는 창세 신화나 <할망본풀이>와 같은 무속 신화를 구성하는 부분적 서사와 같은 계열에 놓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무속 신화의 ‘꽃에게 묻기’ 서사가 무속의 근현대적 산물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지닌 서사일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계보화는 꽃의 신화적 상징성을 묻는 문제와도 연동되어 있다. ‘꽃에게 묻기’ 서사는 기본적으로 꽃의 판단 능력을 전제로 구성되는데, 갈등과 경쟁의 순간에 경쟁의 주체들은 판단과 선택의 주체로서 꽃을 부르고 꽃은 그들의 요구 혹은 기원에 응감하여 승자를 가린다. 이러한 꽃들이 어떤 맥락에서 판단의 주체로 기능하는가 하는 문제가 꽃의 상징성 측면에서 재론될 때, 신화적 꽃 상징의 외연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판단을 의뢰받은 꽃의 선택이 언제나 절대적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는다. 꽃에게 맡긴 판단과 선택은 절대적으로 수용되기도 하고, 조정을 거쳐 수용되거나 심지어 거부되기도 한다. 판단과 선택의 주체로서의 꽃의 상징적 의미는 공통적이면서도 텍스트에 따라 그 판단의 절대성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꽃의 상징성에 대한 수용적 상상력의 편차가 텍스트에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창세 신화와 <할망본풀이>, <도술가>와 그 배경 설화의 꽃은 판단의 주체라는 측면에서는 교집합을 이루나, 세 꽃이 모두 동일한 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것이다. 그렇기에 이런 편차를 고려하여 ‘꽃에게 묻기’로 유형화되는 서사에서 그 꽃의 실제에 접근해 들어간다면, 꽃의 상징성과 그것을 둘러싼 신화적 상상력을 좀더 입체적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꽃에게 묻기’라는 유형적 서사를 통해 경덕왕대 <도술가>와 그 배경 설화를 창세 신화, <할망본풀이>와 같은 무속 신화와 동일 지평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 신화학의 과제 중의 하나인 무불의 관계에 대한 고찰도 발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무속의 생불꽃은 한국 무속 고유의 소산으로 보는 견해도 없지 않으나, 무불의 갈등과 습합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³²⁾ 무속 신화나 무속에 종종 등장하는 꽃이 무교와 불교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초가 되기도 했던 것이다. 경덕왕대 <도술가>에 등장하는 꽃도, 무불 양면에서의 해석이 이루어져 왔다. 그것은 때로 무속적인 주술의 도구로 간주되기도 했고, 이와 반대로 공격이나 위협을 본질로 삼는 무속과는 그 토대가 다른 불교적 원리에 기반하는 주술적 도구라고 해석되기도 했으며, 연화좌(蓮華坐)를 의미하는 온전한 불교적 표상이라고 파악되기도 했다. <도술가>와 그 배경 설화의 꽃 역시도, 무불의 상관성이라는 시각에서 재검토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꽃에게 묻기’라는 공통 서사를 통해 무속의 꽃과 <도술가>의 꽃을 함께 논의한다면, 무불의 관련 양상을 해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확보되는 셈이다. 무속의 꽃과 <도술가>의 꽃을 둘러싼 기왕의 연구 성과가 유의미하게 결합, 상승되어 ‘꽃의 신화적 상상계’와 무불의 관련 양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

비교 신화학의 측면에서도 ‘꽃에게 묻기’ 유형화의 유용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쟁하는 짝패가 불교적 표상인 미륵과 석가로 구현되는 무속 창세 신화는 주지하다시피 그간 비교 신화학의 연구 대상으로도 주목되어 온 것이다.³³⁾ 논의의 초점이 주로 경쟁하는 짝패인 미륵과 석가에 맞

32)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편무영, 「생불화를 통해 본 무불습합론」, 『비교민속학』 13, 1996 참조.

33) 선행 연구 성과의 정리 및 근자의 연구 결과는 심재관 외, 『석가와 미륵의 경쟁담』,

추어져 각 지역의 토착적 신앙과 외래 종교인 불교의 관계가 고찰되는 가운데 꽃이 피어나 승자를 가리는 이야기는 일찌감치 ‘꽃 피우기[花咲かせ]’로 이름 붙여져 전래된 불교 설화의 편린으로 짐작된 바 있다.³⁴⁾ 마나부 와이다(Manabu Waida)는 이를 ‘꽃 시험(flower contest)’이라 명명하고 중앙 아시아 및 동아시아 신화에서의 분포 양상 및 그 영향 관계를 밝히기도 했다.³⁵⁾ 이러한 비교 논의의 대상이 되어 온 텍스트 역시 ‘꽃에게 묻기’라는 서사 유형으로 포괄될 수 있는가, 아니라면 그 차이는 무엇인가 등을 문제로 삼을 때, 미륵·석가 경쟁담의 산포(散布)를 둘러싼 신화의 자생(自生)과 전파(傳播), 보편적 신화소와 특수한 지역적 신화소의 상관관계 등의 문제를 더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널리 통용되는 명명에 대한 본고의 재론과 ‘꽃에게 묻기’라는 명명의 제안은 꽃의 상징과 꽃을 둘러싼 신화적 상상력의 실제에 접근하는 ‘꽃의 신화학’을 염두에 둔 것이다. 위에서 제기한 연구 과제들과 더불어 꽃 서사의 또다른 유형을 포착하고, 그것들이 중형으로 얽혀 있는 양상에 접근하여 그 지형을 구체적으로 그려낼 수 있다면, 꽃의 신화학에 대한 기대가 헛된 공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한국 민속에 나타나는 꽃의 기호적 의미,³⁶⁾ 무속 의례의 제물로 등장하는 꽃의 양상과 의미,³⁷⁾ 구비문학에

씨아이알, 2013 참조

34) 大林太良, 『神話の系譜』, 講談社, 1991(초간: 青土社, 1986), 137~141쪽 및 依田千百子, 『神々の競争』, 君島久子 編, 『東アジアの創世神話』, 弘文堂, 1989, 143~148쪽 참조. 大林太良의 경우, 꽃 피우기 경쟁 이야기가 토착적 화소일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는다.

35) Manabu Waida, “The Flower Contest between Two Divine Rivals: A Study in Central and East Asian Mythology”, *Anthropos*, Bd. 86, H. 1./3, 1991. (<http://www.jstor.org/stable/40462392>)

36) 표인주, 『민속에 나타난 꽃의 기호적 의미와 변화』, 『호남문화연구』 62, 2017 참조.

37) 비교적 근자의 논의로 양종승·최진아, 『서울곳의 신화(神花) 연구』, 『한국무속학』 4,

등장하는 꽃 ‘화소’의 원형성이나 의미³⁸⁾ 등을 고찰한 선행 연구가 이미 있다. 선행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되 여기에 더하여 꽃을 둘러싼 ‘유형적 서사’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꽃의 신화학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면, 꽃의 표상이 이루어 온 신화적 상상계의 궤적, 다시 말해 꽃 신화의 구체적 지형을 확인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꽃에게 묻기’라는 명명의 제안은 이미 상식화된 학술적 어휘에 대한 공연한 트집 잡기가 아니라, 연구의 폭을 넓혀가기 위한 정지 작업의 하나임을 새삼 강조해 둔다.

2002, 이수자, 『무속의례(巫俗儀禮)의 꽃장식, 그 기원적 성격과 의미』, 『한국무속학』 14, 2007 등 참조

38) 김현선, 『구비문학에 나타난 꽃 원형-이야기와 본풀이를 예증삼아』, 『구비문학연구』 28, 2009 및 강명혜, 『제주도 신화 속 꽃의 의미 및 상징성』, 『온지논총』 48, 2016 등 참조

참고문헌

-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1~506쪽.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1~922쪽.
-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개정판, 각, 2007, 1~859쪽.
- 강명혜, 「제주도 신화 속 꽃의 의미 및 상징성」, 『온지논총』 48, 2016, 35~62쪽.
- 강정식, 「할망본풀이의 전승양상」,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 발표자료집』,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17~32쪽.
- 강정식, “생불할망본풀이”, 『한국민속문학사전-설화1』, 국립민속박물관, 2012.
- 김기중, 「<도술가>, 불국토의 선언」, 『韓國詩歌研究』 38, 2015, 225~250쪽.
- 김석근, 「전륜성왕, 미륵, 그리고 메시아 - 미륵신앙의 정치적 기능과 함의에 대한 시론적 접근」, 『동양정치사상사』 9, 2010, 5~21쪽.
- 안영희, 「古人들에게 反映된 꽃의 意味」, 『아시아여성연구』 11, 1972, 189~211쪽.
- 양중승 최진아, 「서울곳의 신화(神花) 연구」, 『한국무속학』 4, 2002, 63~97쪽.
- 양희철, 「月明師의 「兜率歌」와 그 關聯說話 研究」, 『人文科學論集』 8, 1989, 63~78쪽.
- 이도흠, 「도술가의 和靜詩學的 研究」, 『고전문학연구』 8, 1993, 50~91쪽.
- 이수자,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1~500쪽.
- 이수자, 「무속의례(巫俗儀禮)의 꽃장식, 그 기원적 성격과 의미」, 『한국무속학』 14, 2007, 407~442쪽.
- 정진희, 「제주무가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에 관한 일고찰」, 『국문학연구』 7, 2002, 181~197쪽.
- 정진희, 「오키나와 미륵·석가 경쟁담의 실제」, 심재관 외, 『석가와 미륵의 경쟁담』, 씨아이알, 2013, 50~86쪽.
- 조현설, 「두 개의 태양, 한 송이의 꽃 -월명사 일월조정서사의 의미망」, 『민족문화사연구』 54, 2014, 113~142쪽.
- 편무영, 「생불화를 통해 본 무불습합론」, 『비교민속학』 13, 1996, 573~603쪽.
- 표인주, 「민속에 나타난 꽃의 기호적 의미와 변화」, 『호남문화연구』 62, 2017, 445~488쪽.

현승환, 「생불꽃 연구」, 『백록어문』 13, 1997, 9~31쪽.

현용준, 「月明師 兜率歌 背景說話考」,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집문당, 1992, 424~448쪽.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1262쪽.

황병익, 「산화(散花)·직심(直心)·좌주(座主)의 개념과 <도솔가(兜率歌)> 관련설화의 의미 고찰」, 『韓國古詩歌文化研究』 35, 2015, 393~427쪽.

大林太良, 『神話の系譜』, 講談社, 1991, 1~337쪽.

依田千百子, 「神々の競争」, 君島久子 編, 『東アジアの創世神話』, 弘文堂, 1989, 124~167쪽.

ABSTRACT

Asking Flowers to Judge: A Alternative Term for the Competition
between the Two Divine Rivals to Make a Flower Bloom

Jeong, Jin-hee

“The competition to make a flower bloom” refers to a narrative pattern in Korean shamanistic myths that revolves around the competition between the two divine rivals to decide who will dominate the human world. This phrasing implies that those myths are focused on the manifestation of the two rivals’ capability of making a flower bloom. This article asks whether such a title is accurate. By examining the terms and expressions that are used to describe the competition in multiple versions of oral shamanistic creation myths, I argue that the flowers in those texts are in fact understood to bloom by themselves – the flowers are regarded as subjects who have power to decide the winner upon the rivals’ requests. This article, therefore, suggests a new term, “asking a flower” instead of “competition to make a flower bloom.” It demonstrates that a similar episode is recounted in the shamanistic myth, “Halmangbon-puri (shaman songs about Halmang, a goddess of birth and nursing),” and a song of the Silla period, “Tosolga.” It also asks to what extent the term, “asking a flower,” can be generalized as the name of the category. I suggest that such a categorization is crucial as the groundwork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tudies of the “mythology concerning flowers.”

Key Words competition to make a flower bloom; asking a flower; divine rivals; mythology concerning flowers

논문투고일 : 2018.04.15

심사완료일 : 2018.05.09

게재확정일 : 2018.05.15